

I. 시작하는 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시간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필연이 되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를 보여주는 시간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의 인생의 시간은 우연과 같았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연처럼 다가오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필연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II. 중심 말씀

1.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하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하심이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되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일이 못 되면 그것은 내가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빼는 것입니다. 아파도 하나님과 함께 아프고 건강해도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죽어도 하나님께 함께 죽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눔 질문)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2. 바른 인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과 ()를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래 일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쁨도 고통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와 상황에 있던지 우리의 인생이 ()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눔 질문)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 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3. 하나님의 필연은 우리의 일상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은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상을 소홀히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하나님의 필연을 경험한 자리는 작은 일상에서 ()을 चु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작은 일상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작은 일상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필연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필연은 우리의 ()을 통해 완성되어 질 것입니다.

나눔 질문)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필연으로 여기며 소중하게 살아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요?

III. 정리하는 말

우리의 삶에 시간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내 인생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작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필연의 자리로 소중하게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앞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리로

찬양으로 영광돌려 만왕의 왕께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의 삶 나누기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456)

- 1)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 2) 네가 어둠 속을 걸어 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네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 3) 네가 부활의 주 따라 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 4)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후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겸손히 주를 섬길때(찬 212)

-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 2)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 3)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 4)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